

# 나주, 문화콘텐츠 개발 '원도심 재생' 탄력

## 문화재청 공모 지역재생사업 2개 선정

나주시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지역재생사업 2개 분야에 선정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나주 읍성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원도심 재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20일 "한국 유교문화의 정체

성을 담고 있는 서원과 향교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4년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과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생 문화재 사업'은 3년 연속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는 총 사업비 1억2000만원(국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민과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대중 강좌와 전통 의례교육, 문화예술 강좌 등 6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3년 연속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은 나주읍성권에 밀집돼 있는 문화

유산을 걸어서 답사하고 체험하는 독창적인 답사 프로그램으로 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과 공존하는 나주읍성권에 위치한 원도심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로 되살리기 위해 문화재 복원과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 문화체육관광과 관

계자는 "나주가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만큼 문화유산을 박재화하지 않고 현대적 가치로 재탄생 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찾고 싶은 '생생 역사관광도시 나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문화재청 공모에서 3년 연속 선정된 나주시의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자들이 최근 나주읍성 답사를 마치고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 전남 대표 농식품 한 눈에

### 도농기원 농업박람회 개막

### 명품농식품관 볼거리 제곱

전남도를 대표하는 농식품이 한 자리에 모여 농업박람회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0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막한 '제11회 대한민국의농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농식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품농식품관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명품농식품관에는 수출효자 작목인 파프리카, 단감, 심비디움 등 다양한 신선 과채류와 전남에서 집중 육성보급하고 있는 농산물이 전시돼 있다. 특히 10대 수출농식품이 다양한 상징물과 함께 전시돼 관람객에게 유익한 볼거리와 어린이 학습관으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또 150종 692품목이 전시된 명품농식품관에는 탐과채홍보담, 수출 화훼센터, 바위순정원, 10대 수출농식품 포토존 등 다채로운 상징물로 꾸며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농기원 생명농업기술과 차성중 담당은 "명품농식품관은 이름에 걸맞게 우수 농산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김 부각만들기 체험

최근 담양군이 지역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현장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김 부각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군 여성회관에서는 지난해 제과와 제빵, 양재 등 9개 과목을 운영해 171 179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커피 버리스타 및 자연식 반찬만들기 등 8개 과목에 271 1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최근 담양군이 지역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현장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김 부각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군 여성회관에서는 지난해 제과와 제빵, 양재 등 9개 과목을 운영해 171 179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커피 버리스타 및 자연식 반찬만들기 등 8개 과목에 271 1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 영암, 3년만에 수렵장 개장

### 다음달~내년 2월까지 운영

영암군이 3년 만에 수렵장을 개장한다. 군은 20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월출산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로 100m 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 부근,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까치, 까마귀 등 16종으로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한다. 군은 올해부터 포획확인 표지제도

(전자 태그)를 도입했다. 그동안 수렵 동물 포획 후 미신고 등으로 포획한 개체 수 파악이 어렵고 수렵동물 포획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군은 올해 500여 명이 수렵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적정 서식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1억원 이상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과 관광·숙박·식비 등 간접 수입 2억원이 예상된다. 수렵장 이용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 장성읍에 '녹색나눔숲' 만든다

### 5억 들여 내년말 완공

장성군 장성읍에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쉼터인 '녹색나눔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산림청과 녹색사업단이 주관한 201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분야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녹색자금 5억원을 확보했다.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공익숲, 하천숲, 지역특화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녹색자금 5억원을 투입해 내년 연말까지 1만2000㎡ 규모로 ▲생태숲 ▲기념숲 ▲테마숲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녹색나눔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역

여건을 감안, 어르신들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럭 안내판, 경고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녹색나눔숲 대상지는 군이 지난해 사유지 1만450㎡를 매입해 잔디광장을 조성한 지역이다. 특히 대상부지 2km 부근에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이 위치하거나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권익위가 중재 나섰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민 반대로 건설이 중단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앞으로 60일간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에 나선 예정이다. 군산시와 한전, 반대대책위는 ▲건설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 ▲반사파의 저축 여부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 등을 협의, 10월말까지 권익위에 질의서를 보낸다. 권익위는 위원장 명의로 이 질의서를 미군에 보내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미군측 회신

결과에 대해 최종 수용하고,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00여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km)에 첩탑 88개와 345kV급 지상선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행대로 첩탑을 건설하면 땅갈 폭락으로 2조원 안팎의 재산권과 전차파로 인한 건강권이 크게 침해 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88기 중 42기만 설치된 채 주민 반발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중단됐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 단신

### 국립공원 내장산백암사무소, 임산물 채취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백암사무소는 20일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을철 임산물 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내장산백암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허파산, 산약초, 산열매(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를 이용하여 산행하는 행위가 급증,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한 셋길 출입은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자원봉사센터-4대종단 '김장담그기' 협약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20일 "지난 17일 군민복지회관 교육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원불교 고창지구 양인경 교무, 전주교 고창성당 백인철 총회장, 고창중앙교회 전종환 목사 등 4대 종단과 '희망의 김장 담그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 자원봉사종합센터와 4대 종단은 다음달 15~16일 이틀간 배추 2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게 된다. 군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올해 4대 종단과 협약을 맺고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순창, 구제역·AI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

순창군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 순창군에서 사육중인 가축종 구제역 방역대상인 우제류(한우, 젓소, 돼지, 염소, 사슴)는 1096농가 5

만8450두, AI방역대상인 조류(육계, 산란계, 오리)는 67농가에 286만수다. 군은 이번 특별기간중 축산농가에 주 1회이상 축사내 소독실시와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구제역 사전예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북대, 베트남 달랏대학에 LED 식물공장

전국 대학 최대 규모의 LED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전북대에서 베트남에 진출한다. 전북대는 20일 "베트남 달랏대학교에 LED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베트남 기후에서 자라기 어려운 딸기 등을 재배하고 병충해에 약한 백합과 카라 등

화훼 품종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대 LED농생명용합기술연구센터 홍창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최근 베트남 달랏대학교를 방문해 이 대학에 LED 식물공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소득향상

### 호남권 산림경영컨설팅

### 23일 정읍공설운동장서

"2013 호남권 산림경영컨설팅"이 오는 23일 오후 정읍산림조합의 주최로 정읍공설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산림경영컨설팅은 산주에게 산림경영정보를 제공, 자발적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산주에게는 소득을! 국민에게는 풍요를!'이란 목표로, 전국에서 임업관련 관계자를 비롯해 기관, 단체, 귀농·귀촌 희망자 등 25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행사장 내외에 부스를 마련하고 임업과 관련된 전시·홍보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열고, 임산물류의 다양한 먹거리, 국산 임산물의 다양한 먹거리, 국산 목재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이색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지도 등 17개 분야 전문 상담요원 40여명을 배치해 산주 등 참가자들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정읍산림조합의 김민영 조합장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올해 산림조합경영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유익한 정보를 얻는 소중한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

### 전국 최초... 市, 다음달부터 60일간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렸던 전북 전주교도소 이전이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20일 "다음달부터 60일 가량 공모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모가 끝나면 내년 2월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2~3개 지역을 우선 선정, 법무부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특히 법무부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를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시는 2017년 교도소를 착공,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가 이 같은 공모방식을 선택한

것은 교도소가 쓰레기매립장처리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 일반적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2000년 공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전주시가 공모 방식으로 주민들의 얻어 매립장을 삼천동 일대로 안착시킨 전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이 아닌 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지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상립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